‘광주시민의 날 60주년’…대규모 축제 펼쳐진다

광주시, 24일 시청 일대서 행사
초대가수 공연·캐릭터 대전 등 다채
수연례·뮤지컬·골든벨·워터파크도
“시민 모두가 주인공…기쁨 나누길”

광주광역시가 60번째 생일을 맞아 시민들을 초대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의 날’ 6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시청 일원에서 시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대규모 축제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시민의 날’은 ‘광주만세’를 주제로, 광주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기념식과 문화공연, 시민참여무대, 정책 전시, 체험행사까지 온 가족이 하루종일 즐길 수 있는 종합축제로 운영된다.

‘광주시민의 날’인 5월21일은 1980년 5월, 시민 항거에 계엄군이 퇴각한 날이다. 광주시는 이를 기리기 위해 기존 11월 1일이던 시민의 날을 2010년부터 5월21일로 변경해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인 24일 행사를 진행한다.

기념식은 오후 6시 시청 야외음악당 본무대에서 열린다. 관악대 행진을 시작으로, △광주시민의 날 60년 회고 영상 △시장 기념사 △내빈 축사 △2025 시민대상 시상 △디자인비엔날레 1호 티켓 전달 △주먹밥 나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올해 광주시민대상 수상자인 허정 에덴병원 원장은 의료·사회봉사·인재양성·문화역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기념식에는 일본·미국·인도네시아 자매도시에서 보내온 영상 축하 메시지를 상영한다.

‘주먹밥 나눔 퍼포먼스’는 시민과 내빈이 함께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며 광주의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상징적인 행사로 꾸며진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 11시30분부터 시민과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공연이 본무대에서 열린다.

△올해 회갑을 맞은 1966년생 시민 10여명을 초청해 전통방식으로 생일잔치를 여는 ‘수연례(壽宴禮)’ △7080 레트로 음악과 광주 이야기로 구성된 ‘광주의 노래’ △조선대 태권도 뮤지컬 △정책 골든벨 △꿈의 오케스트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시청 앞 도로는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워터월드가 운영되며 시청 앞 잔디광장은 ‘피크닉 인(in) 광주’로 꾸며진다.

오후 7시부터는 광주 5개 자치구 대표 20개 팀이 참여하는 장기자랑 본선 ‘싱투게더 광주 시즌2’가 열린다.

광주시의 정책을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정책평가박람회’도 이날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5개 분야 31개 주요 정책을 전시하며, 현장 투표와 시민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연계행사로는 ‘2025 광주 홍보캐릭터 대전’이 빛의정원에서 열린다. 광주 대표 캐릭터 ‘빛돌이’가 결혼식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초청된 31개 캐릭터가 하객으로 참여해 이색 세리머니를 펼친다.

이밖에 △세계인의날·문화다양성의날 기념행사 △시민안전체험 한마당 △홍보부스 △플리마켓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이어져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의 날 60주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일군 광주의 역사이자, 앞으로 60년을 함께 꿈꾸는 출발점이다”며 “이번 축제가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광장의 기쁨을 나누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을 초청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투표 독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0일 광주 북구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관내 아파트 현관 입구에 선거 독려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전남도, 이상기후 대응 ‘마을 안전지킴이’ 첫 운영

주민 중심 재난예방체계
사전 예찰·긴급대피 지원

전라남도가 최근 급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이상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형 마을 안전지킴이’를 올해 첫 운영한다.

전남형 마을안전지킴이는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재해 위험지역·시설을 직접 예찰하는 사업이다. 지킴이들은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 전남도와 함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자율방재단과 이통장을 중심으로 22개 시군의 재해위험 마을을 선정해 마을안전지킴이를 편성하고, 공무원과 경찰 지구대·파출소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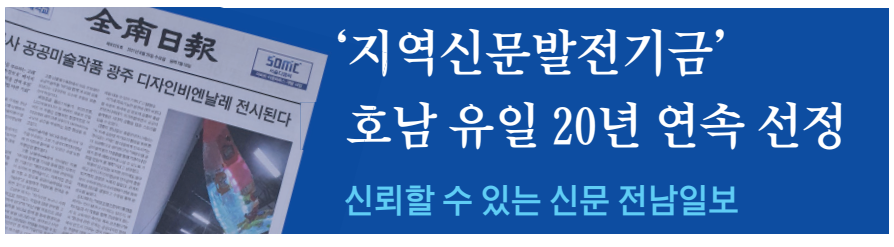
마을안전지킴이는 △침수·산사태 위험지역의 사전 예찰과 긴급 조치 △고령자, 장애인 등 대피 지원 △마을 대피소 운영 및 1대 1 매칭 관리 등을 주요 임무로 수행한다.

읍면동장은 유선 또는 누리소통망(SNS) 단체방을 통해 실시간 지시를 내리고, 기상과 현장 상황을 즉시 공유한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재난관리기금 9억여 원을 투입해 마을 안전지킴이 활동수당으로 1일 5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킴이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방재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장비와 운영비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시군에서 청년 자율방재단과 드론 순찰대를 시범 운영하는 등 방재활동 다변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